

## 메시지 1

### 결혼 (1)

#### 결혼에 관하여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배움

성경: 창 24:2, 4, 7; 딤후 2:3-5; 창 2:18

#### I. 자매들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창 24:2, 4, 7, 롬 8:28, 잠 3:5.

A. 자매들은 결혼을 고려할 때, 결혼할 형제를 스스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자매 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를 배워야 한다—비교, 잠 3:5, 렘 17:7-8.

1.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탁월한 본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다. 리브가가 남편을 선택한 것은 리브가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의 문제였다—창 24:2, 4, 7.

2.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스스로 선택할수록 결과가 더 나빴음을 간증할 수 있다. 우리는 누가 어떤 형제나 자매와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말할 수 없다—참조 창 29:16-31, 35:16-20, 49:29-31.

B. 교회 안에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다면, 자매들은 함께 모여 주님께서 형제들을 더 이끌어 오시기를 특별히 기도할 수 있다.

1. 자매들은 자신이 고르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주님, 저에게 형제를 이끌어 주소서.” 라고 구해야 한다.

2. 만일 일정 시간 후에도 이러한 기도가 어떤 자매에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자매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어떤 자매가 자기 동료자매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주님은 그 기도 대상 자매들뿐 아니라 기도한 자매 자신을 위해서도 형제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비교, 창 20:17.

3. 교회들이 독신 자매들과 독신 형제들을 위해 기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C.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시대와 장차 올 시대와 영원 안에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창 48:15, 롬 8:28, 9:19-23, 사 64:8, 렘 18:6, 엡 1:11.

1. 결혼에 관하여 우리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현대주의적인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 가도록 돕지 않는다.

2.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의 문제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두어야 한다—비교, 계 4:2.

3.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이것이 당신께서 저를 위해 정하신 것이라면, 이루어 지게 하십시오. 저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께 기도하는 것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선택이 저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구원 받을 것이다.

#### II. 자매는 반드시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좋은 아내가 되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삼 년이나 오 년이 걸린다—딤후 2:3-5.

A.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훈련이 요구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은 둘 중 한 사람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가정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보다 우리의 가정에 마음을 더 써야한다. 만일 우리의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일로서 소중히 여기며 그것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잠 14:1 상.

C. 좋은 아내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좋은 아내는 철저한 배움을 통해 그렇게 된 것이다—딤후 2:3-5.

- III.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창 2:18.
- A.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하와는 결혼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지어졌다—창 1:26-31, 2:18.
  - B.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돕기 위한 배필’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짜이 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 C.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위치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도울 수 있는 한 남편과 아내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 메시지 2

### 결혼 (2)

#### 그리스도인 아내

성경: 딤후 2:4, 엡 5:18-24, 골 3:16-18, 벧전 3:1-2

#### I.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딤후 2:4.

- A.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 B. 아내가 자기 남편을 대하는 것의 정수(精髓)는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 아내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것과 같다.
- C. 주님의 사랑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는 사랑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한다—요일 4:7-8, 16-19, 엡 5:25 각주 1, 참조 찬송가 134 장 1 절, 4-5 절.
  - 1. 그 영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를 적시고 계신다. 결국 우리 존재의 섬유조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질로 조성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사랑이 된다는 뜻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요일 4:12-13, 롬 5:5.
  - 2. 참된 사랑은 신성한 분배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린 결과이다.

#### II.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엡 5:22-24, 골 3:18, 벧전 3:1-6.

- A. 에베소서 5 장 22 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한다.
  - 1. 순종한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과는 다르다. 순종은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 복종은 권위 아래 놓여 있는 것을 강조한다.
  - 2. 순종은 양심의 문제이며, 외적인 행위의 문제이다. 복종은 태도의 문제이며, 영의 문제이다. 복종은 내적인 것이고, 반면에 순종은 외적인 것이다.
  - 3. 죄에 속한 것, 곧 하나님과 주님을 거스르는 일들에서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비교 단 3:13-23.
- B. 대부분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의 남편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한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다—엡 5:22.
- C. 에베소서 5 장 22 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주님의 눈에서 남편은 주님을 대표한다. 아내가 반드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주님과 같기 때문이다—비교 벧전 3:5-6.
- D. 아내들은 또한 반드시 그들의 남편을 머리로 취해야 한다.
  - 1. 에베소서 5 장 23 절은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한다.
  - 2. 아내의 머리로써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E. 복종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서 나온다—엡 5:18-22, 골 3:16-18, 비교 아 4:1 하
  - 1. 온 세상에서 아내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아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애쓴다. 그들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2. 우리는 아내가 가져야 하는, 남편을 향한 복종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3.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영에 의해 영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적셔진 것의 결과이다—엡 5:18-22, 골 3:16-18.
    - a. 우리는 에베소서 5 장 22 절을 앞 절들의 문맥 가운데서 읽어야 한다. 그 절들은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엡 5:18.

- 1)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엡 5:18-25.
- 2) 복종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시를 읊는 것과 감사를 드리는 것에서 나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내적으로 충만해진데서 온다.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말하고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또한 자연스럽게 서로 복종하게 된다.

b. 골로새서 3 장 18 절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다고 말한다. 16 절은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 1) 에베소서 5 장에는 그 영이 있고, 골로새서 3 장에는 말씀이 있다.
- 2)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그 말씀은 그 영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달콤한 복종을 가질 것이다—비교 요 6:63.

4. 이러한 복종은 달콤하고 자연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갈면서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럴 때 복종은 고통이 아니라 누림이 된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하는 침대가 된다.

F.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일 것이며 사탄에게는 부끄러움일 것이다. 어떤 자매가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림으로써 복종할 때, 자연스럽게 그녀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그녀의 복종 안에서 표현되시고, 자연스럽게 사탄은 정복당한다.

G.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항상 영적인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 III.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엡 5:33, 비교 벨전 3:2.

- A.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아내는 이러한 남편을 머리로서 존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자기의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엡 5:21.
- B. 아내의 머리인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내는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 합당한 경외심을 가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벨전 3:1-6.

### IV.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들일지라도, 그들은 말씀이 아닌 아내들의 품행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남편들은 두려운 마음을 지닌 여러분의 순결한 품행을 눈으로 지켜봅니다.”—벨전 3:1 하-2.

- A. 만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남편들은 말씀이 아닌 아내들의 품행을 통해서 얻어질 것이다.
- B. 자매들이여,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감동시킬 그러한 품행을 가져야 한다. 그가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말씀 전파를 통해서가 아닌 여러분의 품행에 의해서 얻어질 것이다.

### 메시지 3

#### 자매들의 봉사

#### 자매들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성경: 롬 16:4-6, 12, 행 2:17-18, 21:9

- I.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내려고 아무리 애쓸지라도, 자매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형제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고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무언가가 '잉태되고' 성취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형제들보다 자매들에게 더 많이 달려 있다.
  - A. 만일 교회생활에서 어떤 일에서든 자매들이 잠잠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일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 B.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서 주된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매들이 이러한 책임을 취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복음을 확산하는 일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 II. 가정을 여는 열쇠는 자매들이다—비교 행 12:12, 롬 16:4-5, 몬 2.
  - A. 가정 집회들은 바로 교회가 건축되기 위한 기반이다. 집회를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심장이다—행 2:46, 5:42, 10:22, 11:12, 12:12, 16:34, 20:20, 롬 16:5, 19, 골 4:15, 몬 2.
    1. 새 길 실행의 생명 맥박은 가정이다.
    2. 무엇이든 인간 사회에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모든 것이 유지되는 곳은 가정이다.
    3.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국가의 기초이다. 기반인 가정이 없이는 개인들이 존재하기 어렵고, 국가나 왕국이 세워지기 어렵다.
    4. 의심할 바 없이, 사도들의 시대 동안에 교회는 믿는 이들의 가정에 건축되었다(행 2:46, 롬 16:5). 사탄의 영향 아래 기독교는 이러한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다.
    5. 증가를 얻으려면, 우리는 가정 집회를 가져야 한다.
  - B. 가정을 여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책임 형제들은 자매들과 교통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자매들에게 권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복음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자매들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1. 형제들은 직장에 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더 바쁘므로, 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가정을 관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많은 자매들은 집에 머물러 있고 다른 수많은 일에 점유되어 있지 않다.
    2. 신약에 따르면, 자매들은 형제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 주 예수님은 자매들에 의해 두 번 기쁨 바름을 받으셨다. 형제들은 생각 속에 빠져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물었다—마 26:6-13, 눅 7:36-39.
    3. 그러므로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장려하려면, 우리는 자매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매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매들은 반드시 일어나서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해야 한다.
  - C.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복음은 형제들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반드시 자매들이 그것을 돌보게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가정이 복음을 위해 열릴 때까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자매들의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
- III. 우리는 교회생활을 중단한 가정들을 회복하려 할 때, 자매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비교 행 16:14, 40.
  - A. 교회생활을 중단한 형제자매들을 회복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각 소그룹의 첫 번째 책임은 교회생활을 중단한 형제자매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 B. 우리는 교회생활을 중단한 가정들을 회복하러 갈 때, 형제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형제들에게는 체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매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먼저 형제들이 아닌 자매들이 그러한 가정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뜻이다.
- C. 자매가 자매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가 더 쉽다. 일단 우리가 자매들을 얻으면, 그들의 남편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거의 모든 남편은 자기 아내를 따른다.
- D.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자매들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교회생활을 중단한 가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V. 만약 자매들이 매우 능동적이라면, 여러분은 살아 있는 교회를 갖게 될 것이다—요 12:2-3, 롬 16:1-3, 6, 12.

- A. 어떤 면에 있어서 자매들은 형제들보다 더 능숙하다. 만약 그녀들의 능력들이 말살된다면, 이것은 교회에게 큰 손실일 것이다.
- B. 자매들 안에는 영적이고 신성한 큰 자산이 있다. 우리는 그 자산을 개발해야 한다.
- C. 자매들은 자유로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그녀들은 해방되어야 한다.
- D. 모범적인 교회의 초기 모습인 베다니의 집에는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았다. 전형적인 교회 안에는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다. 따라서 자매들은 자유로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요 12:2.

메시지 4  
자매들의 봉사  
집회에서 자매들이 말함

성경: 행 2:17-18, 21:8-9, 고전 11:5, 14:26, 31, 34-35, 딤후 2:11-12

- I. 고린도전서 11 장 5 절에 따르면, 여자들은 머리를 덮고 (물론 공개적으로) 신언할 수 있다
  - A. 모든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 낼 특권이 있다
  - B. 온 교회가 함께 모일 때 다 신언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전 14:31
- II. 사도행전 2 장 17 절과 18 절 그리고 21 장 9 절은 여자들이 신언했다는 것을 확증한다.
  - A. 사도행전 2 장 17 절과 18 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는 정녕 나의 남녀 노예들 위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라고 말한다.
  - B. 사도행전 21 장 9 절은 “이 사람(복음 전파자 빌립)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 넷이 있었다.”라고 말한다.
- III. 그러나 디모데전서 2 장 12 절에서는 여자들이 교리를 규정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 즉 권위자들로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 A. 디모데전서 2 장 11 절과 12 절은 “여자는 매사에 복종하면서 조용히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 B.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신성한 진리에 관한 교리적인 의미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곧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가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이다.
- IV. 그러므로 신약의 원칙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4 장 34 절과 35 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집회에서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들이 교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A. 고린도전서 14 장 34 절과 35 절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한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 B. 이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교회 집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그녀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 C.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상 정하신 권위의 문제와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통치상 정하신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D. 여자들은 기도하고 신언할 수 있다. 즉 (주로)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을 말해 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들은 형제들의 덮개 아래서 기도하고 신언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자들이 복종해야 한다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 V. 고린도전서 14 장 34 절에서, 바울은 교회 집회에서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이 절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절을 11 장과 조화시킬 길이 없는데, 11 장에서 바울은 자매들이 머리를 덮개로 덮고 기도하거나 신언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자매들이 그녀들의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한, 집회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표시이다.
- VI. 교회 집회에서 형제들은 말할 때 앞장서야 하지만, 자매들은 집회를 종교의 공허함에서 그리스도의 실재 안으로 이끌기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 엡 3:8, 골 2:6, 고전 14:26.

- A. “우리가 집회할 때 자매들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반신불수나 다름이 없다.” — 교회 봉사의 중심 이상, 56 쪽.
- B. 자매들은 집회를 종교의 공허함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안으로 이끌기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 교회 집회의 내용을 높이려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여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집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엡 3:8, 골 2:6, 고전 14:26.
  2.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서로 함께 잔치하기 위해,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한 몫을 집회에 가져와서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서로 나누어야 한다—신 12:5-7, 11-12, 26-27, 14:22-23, 16:16-17, 고전 14:26, 영한 동변 찬송가 863, 864, 867, 1146 장 3 절, 1165, 1169, 1178, 1216 장.
  3.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의 풍성이 말씀 안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자매들은 이 문제에 관해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풍성을 체험할 부담을 가져야 한다—엡 3:8, 14-21, 빌 3:7-16, 비교 요 20:14-18.
  4. 자매들은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분의 풍성의 산물을 거두어 교회 집회에서 그것을 바침으로써, 집회가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전람이 되게 해야 한다—골 1:12, 고전 14:26.